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토프락 웨이스와
그의 딸들



항상
나를
반겨준
고마움
보듬어
살게요

핫이슈
세계인의 날 기념식,
그날의 현장 속으로

정책 돋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슬기로운 취업생활

숫자로 말해요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현황

출입국 사람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둘째 딸
네시베

첫째 딸
엘리프

막내딸
메렘

원팀의 비결

축구팀에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격수가 공격만, 수비수는 수비만 주로 했지만 현대축구는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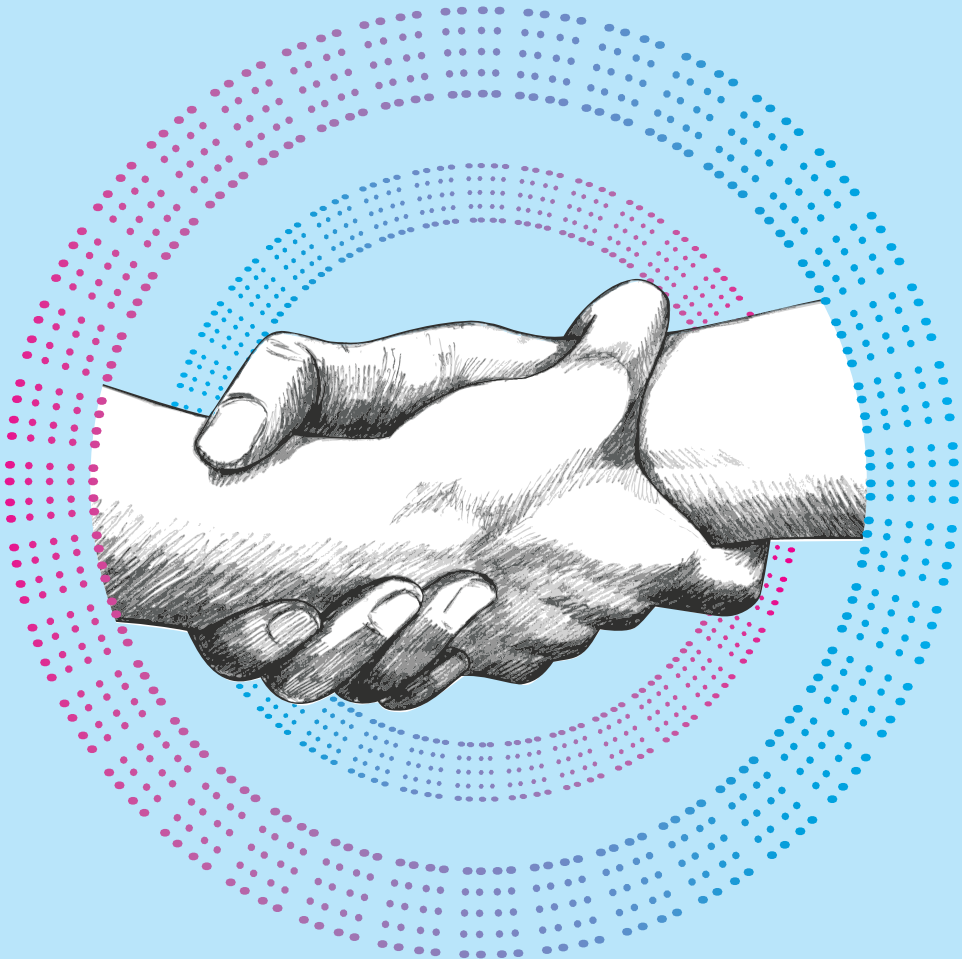
공격수가 수비도 하고, 때에 따라 수비수가 공격에 가담해 득점하기도 합니다.

선수 간 포지션을 넘나드는 유기적인 플레이가 더 팀을 끈끈하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비결도 축구팀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족하거나 필요로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인간관계도 '원팀'처럼 더 조화롭고 끈끈해질 수 있습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입니다. 태양의 강렬한 열기와 함께 청명한 바다와 시원한 파도 소리가 문득 그리워집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울 때지만 항상 건강 유의하시어 안전하게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동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도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올해, 200번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으로 힘찬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 '세계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이 갖는 의미를 뜻깊게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를 기울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Dear
readers,

It is July and summer is right around the corner – an exciting season of good vibes, warm sunshine and delightful trips to golden beaches. Although it is indisputably a magical season, I wish your well-being and not be burned out by summer heat.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year, we have celebrated an important milestone.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introducing “Special Naturalisation Scheme for Talented Individuals” and we have seen the 200th new Korean who proudly became a citizen of this country under this scheme and start a new life in this country.

We also commemorated annual “Together Day” – a day designated by law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other cultures and customs brought here by non-nationals – and an official commemorative ceremony gave us an opportunity to recall the significance of this value. Our efforts will continue throughout the remaining half of the year to create a society, where both Korean nationals and non-nationals coexist by ensuring their voice of are heard.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this issue of our Gong-zone magazine and I wish you all the best.

Commissioner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Lee, Jae-yoo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1 vol. 56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1년 7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에이치썸(02-2269-0309)

06 오늘도 행복해

제 이름은 서희원입니다



08 핫이슈

세계인의 날 기념식,
그날의 현장 속으로

12 한눈으로 보는 이민정책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체류 허용

14 한국의 [M·E]

“항상 나를 반겨준 고마움,
보답하며 살게요”
토프락 웨이스



18 정책 돋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슬기로운 취업생활

22 지구야 놀자
지구온난화, 더위에 빠진 지구 구하기



24 숫자로 말해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



25 그곳이 알고 싶다
이민 관련 학회 알아보기

26 출입국 사람들
늘어나는 외국인, K-행정 서비스도 진화 중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30 공존 에티켓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31 칭찬합시다
백재욱 출입국관리서기
오세용 출입국관리주사보

32 KIS NEWS

34 EVENT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gxbpPT

제 이름은 서희원입니다

제게는 이름이 두 개 있습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 사람으로 이름은 아브라크마노바 스베틀라나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서희원, 한국 이름입니다. 2002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 2016년 귀화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해 주변 러시아어권 국가의 의료관광 환자들이 한국에서 쾌적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터로서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대되고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이자 마케터로서 더욱 성장하고 싶다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책을 출판하고 강의를 통해 후배들도 돕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이자
마케터로서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서희원
(키르기스스탄에서 귀환)

함께 그리는
공존의 무지개

세계인의 날 기념식, 그날의 현장 속으로

5월 20일, 올해로
14회를 맞은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예년과 달리 간소하게
치러졌지만, 다채로운
영상들과 재한외국인들의
풍부한 이야기로
세계인의 날이 갖는
의미를 뜻깊게 공유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다.



지난 5월 20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치러졌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세계인의 날은 국적과 인종, 문화를 초월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하자는 취지로 2008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법무부 주은혜 주무관과 네 팔의 수잔 샤키아 씨가 사회를 맡은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날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올해

의 이민자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씨 등이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올해의 기념식은 행사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 만큼 행사의 취지를 가득 담은 다채로운 영상으로 밀도있게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2018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미얀마인 학생 완이화 양이 직접 부른 <나는 하나의 집을 원해요>라는 노래로 시작되었으며 해당 축하 영상의 완이화 학생과 가족사진을 통해 '화려하고 비싼 집이 아니라라도 나와 내 가족이 마음 편히 쉴수 있는 안식처'라는 존재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지니는지 곱씹어볼 수 있었다.

재한외국인의 희망찬 이야기를 다룬 세계인의 날 주제 영상도 눈길을 끌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간호사로 활동하는 베트남 출신의 탁현진 씨,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프랑스 출신의 로르, 프리미어러거를 꿈꾸는 가나 출신의 청소년 아이작 등 다양한 재한외국인이 꿈과 목표를 갖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로 도약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활동으로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포상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상 전 수상자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일시 2021년 5월 20일
장소 정부과천청사 대강당
주최 법무부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일시 2021년 5월 20일(목) 14:30~15:45

장소 정부과천청사 대강당 주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 오라는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개최했다. 직원 및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등 공모전에 참여한 80여 명은 자신들의 그림에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희망과 어려운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 등을 꼭꼭 눌러 담았으며, 이들의 그림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들의 활약상이 담긴 소개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장관은 무대에서 호명되는 수상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전달하며 축하 인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 표창은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씨를 비롯해 조삼혁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과 사단법인 <너머>가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최병규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과 김현기 주식회사 디케이알텍 대표이사 등 7개 팀이 받았다.

이밖에 법무부장관 표창에는 박창숙 주식회사 창우섬유 대표이사 등 7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세계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색깔이 아름다운 공존의 무지개'를 그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어야 할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나라가 국민과 외국인 모두 행복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또 현재 대한민국은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공존하는 꿈과 희망이 나라가 되었다며 역사적 역경을 우수한 역량으로 극복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룬 우리는 이제 역압받는 작은 나라, 약한 나라를 포용할 때가 되었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동반자가 되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발간된 재한외국인 미담사례집의 실제 주인공인 스리랑카 출신 위신 씨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 <외국산이 국내산보다 낫네>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가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20년, 한국 여성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그는 은혜의 나라인 한국을 위해서 작지만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친구들과, 때로는 다른 나라 이주민과 연대하여 꾸준히 이웃돕기 선행을 베풀며 사는 그의 모습을 지켜본



한국 사람이 그에게 “외국산이 국내산보다 낫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에 참석자들의 얼굴에 유쾌한 미소가 지어졌다. 미담사례집에서는 위신 씨의 이야기 외에도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 인명구조활동을 펼친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 씨 등 여러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생생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미담사례집에 수록된 20여 편의 소중한 이야기는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www.togetherda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념식의 피날레인 축하공연은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 팀의 재능기부로 장식되었다. 뮤지컬배우를 꿈꾸는 미국 출신 스테파니 씨가 ‘아름다운 나라’를 열창하며 첫 테이프를 끊었고 뒤이어 한글팀(한국을 사랑하는 글로벌 아티스트팀)이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OST ‘시작’을 열창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멕시코 출신의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씨가 한글팀의 멤버로 기타를 연주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엑스팻츠 사물놀이단’은 미국, 루마니아,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 출신의 단원들로 이루어진 사물놀이단으로 이들은 ‘영남사물놀이’를 공연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내며 무대를 마쳤다.

축하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하나되어 웃고 박수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잠시나마 하나가 된 이들의 모습을 보며, 모두가 함께 웃으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다문화사회가 그리 멀리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상영된 다양한 영상 및 기념식 현장 영상은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www.togetherday.kr) 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대통령 표창, 수공기간 30년)

1970년대에 선교사 자격으로 한국 땅을 밟은 이래 빈민과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지구생태 문제에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음

“이번 표창은 저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성공률반외방선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선교회의 배려와 지지, 그리고 방향 설정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김현기
(국무총리 표창, 수공기간 8년 5개월)

모범적인 기업 경영과 국내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와 주거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음

“사업체를 운영하며 만난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뜻깊은 날에 표창을 받게 된 점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체류 허용

법무부는 국내법상 불법체류 외국인의 아동 중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공교육을 받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외국인 아동들에게는 언어·문화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제도 시행일 : 2021. 4. 19. ~ 2025. 2. 28.



대상 아동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국내에서 출생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5. 2. 28.까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기간 내에 신청하는 아동도 해당된다.



아동에 대한 조치

신청일 현재 중·고교생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퇴학 조치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체류자격 취소 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출국조치가 원칙이지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불법체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허용
- 아동 구제 신청시 아동 부모는 범칙금 납부, 이후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의활동허가 등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자진 출국, 이를 어기고 다시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신청 관련 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Children born in Korea to illegal migrant parents to be offered a status for conditional sta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cided to open a way to offer a status of stay to foreign children born to illegal migrants, who continuously lived in Korea for 15+ years since their birth in Korea. Those eligible should be currently receiving public education or have completed high school and the conditional status will be offered after reviewing their school attendance record and etc.

This decision was made as the Ministry considers these children hold a linguistic and cultural identity almost equivalent to that of Korean nationals and returning to their parents' country is practically impossible in various aspects. This new scheme will be implemented on a temporary basis from 19 April 2021 to 28 February 2025.



Who are eligible?

Children who have completed elementary school by 28 February 2021 meeting all of the following three requirements at the time of application of this temporary scheme.

- ① Must be born in Korea
- ② 15+ years of continuous stay in Korea
- ③ Should be attending middle/high school or have completed high school as of the date of application.



What will happen to these children?

High school students as of the date of application will be offered D-4 visa until they complete high school.

High school graduates as of the date of application will either be eligible to change their resident permit to a) a permit for higher education or employment provided that they meet requirements or will be offered b) an one-year temporary stay permit (G-1) if they fail to meet requirements for higher education or employment.

Those who fail to meet requirement for this temporary scheme, such as carrying a history of being expelled from school, will face their resident permit being revoked or refusal of their resident permit extension.



What will happen to parents of these children?

- Although they are subject to deportation, they will be temporarily allowed to stay in Korea until their child(ren) enters the age of majority or completes high school, who requires support from their illegal migrant parents.
- Should illegal migrants wish to apply for this temporary scheme, they should pay penalty first and they will be offered a temporary stay resident permit (G-1), which will allow them to stay in Korea until their child(ren) complete(s) high school and will also be exceptionally allowed to engage in activities to support their child(ren).
- Once their child(ren) completes high school or enters the age of majority, they should voluntarily leave Korea. They will be deported and blacklisted if they fall into an illegal status once again.



How can I apply and where should I contact for questions?

Visit Korea Immigration Service website at www.immigration.go.kr or Hi Korea website at www.hikorea.go.kr to download forms and check required documents.

If you have questions, please visit the immigration office in your jurisdiction.



“항상 나를
반겨준 고마움,
보답하며 살게요”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토프락 웨이스

터키 출신의 토프락 웨이스 씨가 올해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로 선정됐다. 한국과 터키의 경제 교류와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된 것인데, 제도 시행 10년 만에 탄생한 200번째 주인공이라 더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더 흥미로웠던 건 그가 우리나라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겪은 인생 이야기이다.

두 번의 우연이 이끈 한국행

그가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당시 터키 앙카라의 중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는 터키로 견학차 자신의 대학교를 방문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맡았다. 어릴 때 미국에서 지낸 경험이 있어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는 한국 학생들과 매우 친한 사이로 발전했다. 한 달이 지나 헤어질 즈음 친하게 지낸 한 학생이 그에게 “웨이스는 나중에 꼭 한국에 오게 될 거야”라는 농담을 했다. 흔한 농담이었지만, 거짓말처럼 얼마 뒤 그에게 아시아 국가의 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과 일본, 홍콩 등 몇 군데의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는 주저 없이 서울대학교를 선택했다. 한 달간 함께한 서울대 학생들과의 추억이 좋았고, 한국과 터키가 ‘형제의 나라’라는 사실도 한몫했다.

통역사부터 방송국 PD까지

우리나라에 도착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에 편입하기 전에 같은 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의 한국어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다. “한국과 터키는 우랄알타이어족으로 어순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보다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한 그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종종 외국인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당시 우리말을 잘하는 외국인, 그중에서도 터키인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방송가와 연이 닿으면서 급



기야 드라마 해외제작 PD로까지 영역을 넓혔다. 당사가 한류붐이 막 일어날 때였는데, 그는 외주 방송제작사에 해외 드라마 촬영할 때 현지 장소 섭외와 현지 배우 계약, 판권 수출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통역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입국한 터키축구협회 통역을 담당했고, 터키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방한했을 때는 회담장에서 우리나라와 터키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정부 고위직 인사가 터키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가 함께 터키로 날아가 양국의 소통을 도왔다.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언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 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에게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저도 한국말이 늘면서 다양한 경험이 연이어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터키-한국의 경제 협력에 앞장서

그는 이후 3년간 터키로 돌아갔다. 통역을 맡으면서 알게 된 당시 터키 총리이자 현 대통령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를 터키로 초청해 터키투자청에서 해외투자 유치사업을 맡긴 것이다. 일찍이 해외투자 유치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주로 한국과 미국, 캐나다 기업들을 담당해 이들의 터키 투자를 이끌어냈다. 터키는 유럽보다 인건비와 토지가 저렴하고 세금 문제 등에서도 유리해 유럽 진출을 노리는 이들에게 큰 장점이 있었다.

터키투자청 한국지사장으로 발령받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우리나라와 터키의 경제 교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이후 그는 국내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해외 수출, 계약 등 국제 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에게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사업

협상을 할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물었다.

“첫 번째는 협상할 때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양 바이어들은 한국 사람들이 감정에 솔직한 편이란 걸 잘 알기에 그걸 자극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협상할 때는 냉정함을 유지한 채 목표물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그걸 낚아채야 합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거죠. 또 아무리 협상 조건이 최악으로 치닫한다고 해도 협상의 문은 열어놔야 합니다. 협상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상할 때는 인간적인 관계와 비즈니스 관계를 혼동하지 말고, 상대방과 기브앤테이크를 정확하게 해서 실리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 역사책에
등장하는 돌궐족이
바로 터키인입니다.

행동이 중요한 한국 사람

한국과 터키는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이다. 6.25전쟁 당시 2만 명이 넘는 터키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때의 고마움과 인연으로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가 되었다.

“많은 한국 사람이 터키와 한국이 6.25 전쟁에서 처음 만났다고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보다 훨씬 일찍 만났습니다. 한국 역사책에 등장하는 돌궐족이 바로 터키인입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과 터키는 닮은 점이 많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 나라는 우랄 알타이어족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 등 인간관계에 대한 예의나 문화 면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 물론 다른 부분도 적지 않다.

“일례로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갑니다. ‘빨리빨리’,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그런 한국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일단 시작하고, 시작하면 포기하면 안 되고,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한국의 정서 같습니다. 반면 터키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먼저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로 한국 돕고파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딸이 있다. 엘리프, 네시베, 메렘으로, 둘째와 막내인 네시베와 메렘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에게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물으니 웃으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근하면 되도록 집에서 식사하고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주변의 양재천이나 공원에서 딸들과 자전거를 타거나 공놀이를 하며 추억을 쌓는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국과 터키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저는 한국을 사랑하지만 터키인으로 서도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면서 선뜻 귀화를 신청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터키 국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시간이 날 때 터키 군인들이 잠들어 있는 재한유엔기념공원에 들르는 것도 모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 때문이다. 그렇기에 토프락 웨이스 씨는 복수국적을 인정해주는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너무나 고맙다.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그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그의

대답은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였다.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나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형제의 나라에서 왔다는 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준 이 고마움을 빚이라 여기고, 앞으로는 그걸 갚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는 그 방법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서양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또 협상할 때 어떻게 해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지 등 제가 겪고 알고 있는 비즈니스 노하우를 국내 비즈니스맨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또 한국을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프로젝트도 운영해보고 싶고,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의 혜택을 본 만큼 많은 외국인에게 이 좋은 제도를 홍보하는 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대답하는 그가 기분 좋은 상상을 한 듯 잠시 미소를 지었다. 반짝이는 눈빛, 그는 설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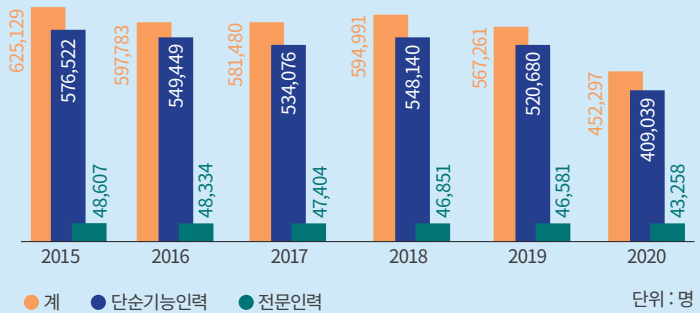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의 즐거로운 취업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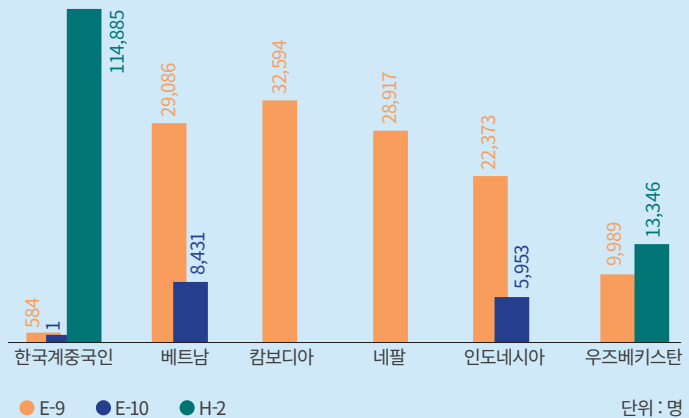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가 어느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단순기능인력으로, 주로 농어업 부문 등 1차산업 분야와 도장·금형·주조 등의 기초 2차산업의 비숙련 부문 등에서 일하고 있다. 단순기능인력으로 분류되는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40만 명대로 다소 감소했지만, 그전까지는 매년 50만 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각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며 인력난을 해소해주었다. 이들은 풍부한 국내 노동 경험과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점차 국내 노동시장에서 가치있는 숙련기능인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단순기능인력인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적법하면서도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취업자격과 관련하여 단순기능인력 외국인근로자가 가지는 비자 종류와 고용허가제도,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주의 의무사항까지 다양한 정보를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자.

연도별 취업자격 외국인 현황



국적별 취업자격 외국인 현황

2021. 4. 기준



단순기능인력 비자의 양대 산맥: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외국인근로자 단순기능인력은 크게 비전문취업(E-9) 비자나 선원취업(E-10) 비자로 구분된다. 위 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국내에 입국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1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고용허가제를 취득하고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 인력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허용업종 : 제조업(뿌리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건설폐기업, 냉장냉동업, 재료수집업, 출판업) 등

고용허가제 대상국가(16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절차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선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인력 도입 규모 및
송출국가 선정

송출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및 송출 인력 선정

송출국 정부는 한국어 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송출 대상 인력 선정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내국인을 구인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한 사용자는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사증 발급 및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법무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외국인 근로자)

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2 선원취업(E-10)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항선, 20톤 이상의 어선 및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에 외국인 선원취업(E-10) 허용

취업 범위 • 내항선원으로 국내 취업 •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 취업 •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몇가지 사항들이 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한국생활을 위해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표적인 의무 세 가지를 알아보자.

1. 근무처변경허가

비전문취업자 및 선원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근무처를 변경하여 근무를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근무를 시작하기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근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2. 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3. 체류지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 체류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Declaration obligations required to foreign workers

If you are a foreign worker in Korea, there are some critically important matters you must declare on time. Among many, fulfilling your duty to declare the following three matters will ensure a hassle-free and happy life in Korea.

1. Obtaining authorization to change your workplace

In principle, non-professional workers and marine crew members are required to maintain employment with his/her workplace, which sponsored his/her employment permit. However, exceptions can be offered to those who are practically forced to quit work arising from a temporary or permanent closure of his/her workplace. In this case, they can apply to change his/her employer or workplace. Bear in mind that doing so requires a visit to the immigration office in his/her jurisdiction and obtain authorization to change employer or workplace prior to his/her initial day of new employment.

2. Report change of your registered matters

If any of your registered information described in Article 35 of the Immigration Act (name, gender, date of birth, nationality, passport number/expiry date/issue date) has been changed, such change must be reported to the immigration office in his/her jurisdiction within 15 days of change.

3. Report change of your place of stay

If you changed your place of sta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of the Immigration Act, you must report any change to the Si/Gun/Gu or Eup/Myeon/Dong office or the immigration office in your jurisdiction within 15 days of such change.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 신변에 변화가 생겼을 때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고용변동신고

비전문인력(E-9), 선원취업(E-10)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주소지 관할청(사무소·출장소)장 등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증도 퇴직할 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 외국인이 사망할 때
-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할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할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신고방법

1. 방문신고

체류지 관할 사무소 직접방문 신고

2. 팩스신고(1577-1346),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리 가능

제출서류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퇴직 외국인선원 인수인계확인서(선원취업자의 경우)
-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지구온난화

더위에 빠진 지구 구하기

지구온난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세계 곳곳,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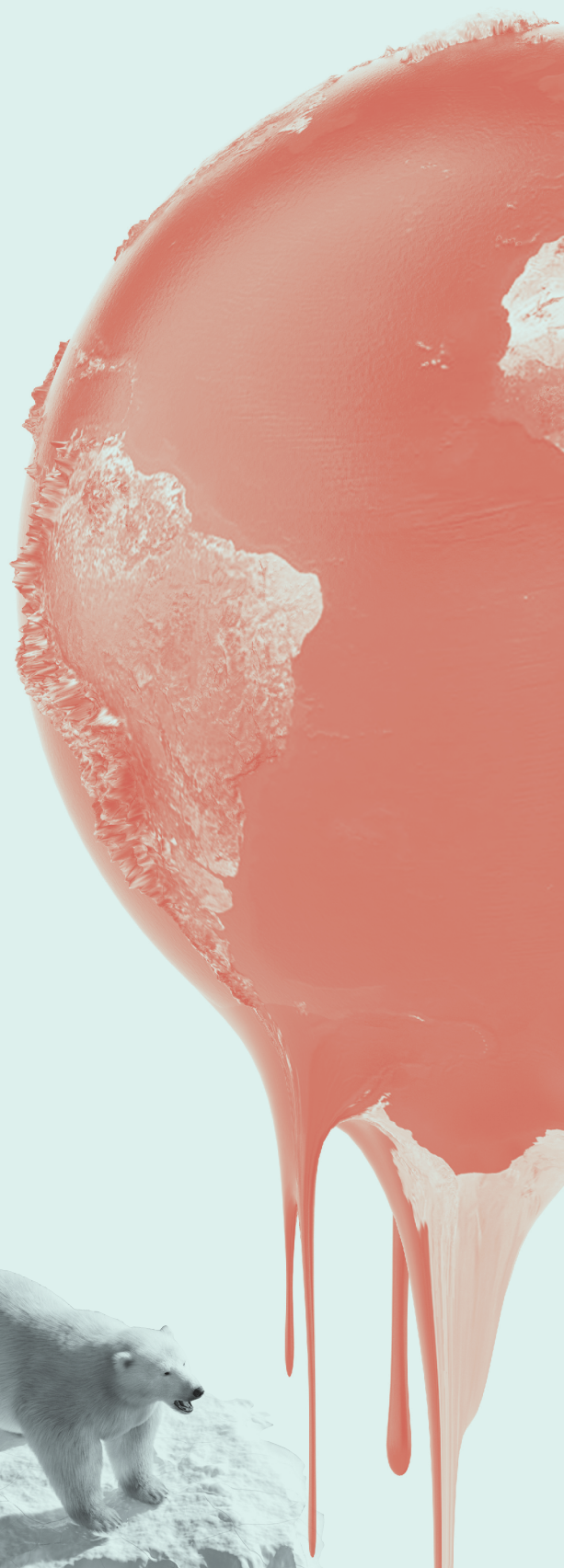
인류의 지나친 욕심이 자초한 지구온난화, 이 문제를 되돌려놓아야 할 주체 역시 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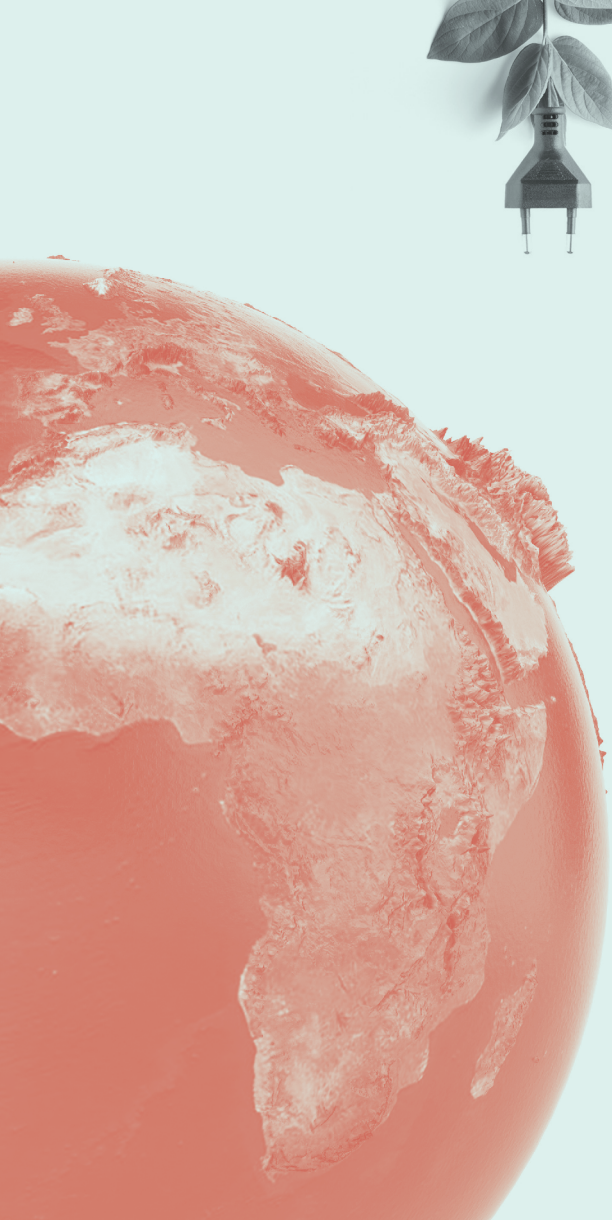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 지구를 데운다

지구온난화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낄 만큼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에 속도가 붙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전 세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온실효과 때문이다. 온실효과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면서 지표면을 뜨겁게 달구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가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해 대기 밖으로 공기를 드나들지 못하게 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다.

그럼 온실가스는 어떻게 발생할까?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쓰거나 제철, 시멘트 공정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고, 메탄은 축산업이나 농업 분야에서 주로 발생시킨다. 아산화질소는 비료와 화석연료에 의해 주로 배출된다. 이렇게 온실가스는 공기 중에서 수년에서 수천 년 이상 머문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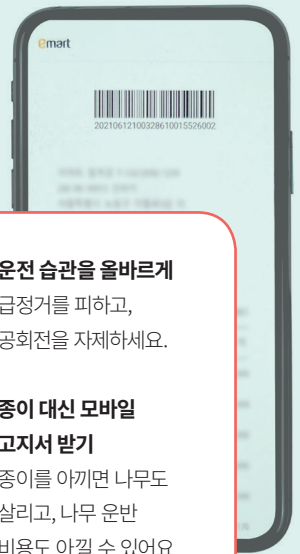




지구온난화의 증거들

지구온난화는 기상이변이나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육상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가뭄과 홍수 등으로 식량 작물의 생산량이 줄어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해 세계 인구의 30%가 살고 있는 해안지대가 침수될 위기에 놓인다. 바다 수온 상승은 녹조와 적조 현상의 주범인 플랑크톤 개체수를 증가시키고 어종 생태계와 해양생물의 먹이사슬 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태풍과 허리케인, 홍수, 산불 역시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면서 눈에 띄는 변화들을 겪고 있다. 육상 생태계의 변화로 강원도와 충청지역에서 아열대성 곤충인 매미나방과 꽃매미, 대벌레 등이 발견됐으며 근해에 열대성 어류가 증가했다. 전례 없는 폭우와 무더위, 한파 역시 지구온난화의 작품이다. 더운 날씨 탓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 과일 재배농가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생활습관



자동차 사용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해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세요.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꽉 막힌 에어컨 필터가 전기를 많이 소모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전원을 꺼도 전기가 소모돼요.



절약형 샤워기 사용
갑자기 많은 양의 온수를 쓰면 연료가 낭비돼요.



제철음식 먹기
제철음식을 먹으면 운송 관련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운전 습관을 올바르게
급정거를 피하고, 공회전을 자제하세요.



종이 대신 모바일 고지서 받기
종이를 아끼면 나무도 살리고, 나무 운반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발생해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매년 2백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체류외국인의 다양한 통계를 알아본다.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이 살까?

연도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현황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의 국내 체류가 매년 압도적으로 많고,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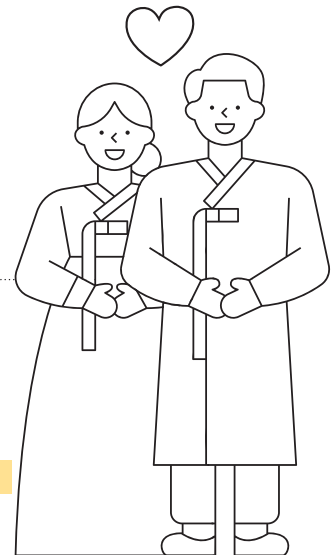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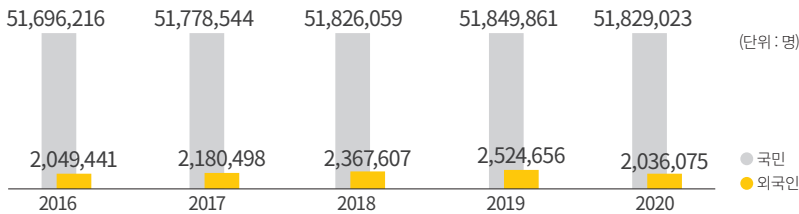
(단위: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국	1,016,607	1,018,074	1,070,566	1,101,782	894,906
베트남	149,384	169,738	196,633	224,518	211,243
태국	100,860	153,259	197,764	209,909	181,386
미국	140,222	143,568	151,018	156,982	145,580
우즈베키스탄	54,490	62,870	68,433	75,320	65,205
필리핀	56,980	58,480	60,139	62,398	49,800
일본	51,297	53,670	60,878	86,196	26,515
기타	479,601	520,839	562,176	607,551	461,440

대한민국 속으로

연도별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에 다소 주춤했지만, 그 전까지 체류외국인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랑 찾아 대한민국

연도별 결혼이민자

국내 결혼이민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말 결혼이민자도 전년 대비 1.5%나 증가했다.

연도	결혼이민자
2016	152,374
2017	155,457
2018	159,206
2019	166,025
2020	168,594

(단위: 명)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

이민 관련 학회 알아보기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민 관련 학회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민 관련 학회들을 알아본다.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회는 지난 2007년 5월에 설립된 이래, 한국의 이민과 다문화연구, 이민정책개발에 있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이주 및 이민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다양하게 게재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독려한다. 올해에는 ‘팬데믹과 이주 웹세미나’, ‘미안마 민주화 항쟁 전문가 웹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이민정책학회

2016년 2월에 창립된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지속가능한 성장 국가를 위해 이민 사회통합정책과 이민행정·이민 법제도 등에 관한 학술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매년 동·하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 2회 한국이민정책학보(학술지)를 발간하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난민,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회 통합과 국제인권조약을 포함한 이민·다문화정책 과제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이민행정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는 이민과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이민행정 및 사회통합정책의 현안과 과제를 매월 관련 교수 및 석·박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들과 함께 토론·연구하고, 연 4회 학술지를 발행한다. 또한 유관기관의 거버넌스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무부의 외국인·출입국 관련 정책과 행정의 합리적 정책 수립 및 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 K-행정 서비스도 진화 중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DAEJEON IMMIGRATION



대전·세종·충남은 백제문화와 함께 행정 및 기술교육의 요람지로서 외국인 유학생, 연구·기술인력 및 농어촌 지역 결혼이민자 등이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다. 이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K-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민원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부서 간 공조 강화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충남 8개 시·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북 2개군의 출입국·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대전사무소)는 1984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개청 당시에는 충북 지역까지 관할했는데 1999년 관할 조정을 통해 충북지역 업무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됐다. 이후 2008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거리상 가까운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을 2008년 대전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편입했다. 민원 수요가 많은 천안, 서산, 당진에는 출장소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광역단속팀이 신설됐는데 이때 신규 인력을 대거 충원하면서 20~30대 직원 비중이 높아졌다. 박재완 소장은 “젊은 직원들이 많아 밝고 역동적이며 활기 넘치는 것이 대전사무소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대전사무소의 또 다른 특징은 체류외국인들 중 유학생 비중(23.3%)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는 관내 카이스트, 을지대 등 관내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대학이 32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덕연구단지가 있어

연구·기술 인력도 많은 편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대전사무소 관할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 수는 4만 3,199명이다. 등록외국인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입국 외국인 수가 줄면서 전년 동월(4만 5,796명) 대비 약 5.7%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본국으로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으로 인해 단기·등록 외국인 기간 연장, 출국기간 연장, 출국유예 등의 민원 업무 건수는 대폭 증가했다. 이에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부하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재완 소장은 “관리과와 조사과 간 긴밀한 업무 협조와 온라인 방문예약제 실시로 체류 민원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대전사무소의 조직은 체류관리, 사증 발급, 사회통합 등을 담당하는 관리과와 위반조사, 보호, 광역단속 등을 수행하는 조사과로 나뉘는데 조사과 직원이 관리과의 체류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등 서로 협업하여 특정 과의 업무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체류 민원 창구를 방문예약, 외국인등록, 증명서 발급, 상담 등 업무별로 세분화해 증가하는 민원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젊은 직원들이 많아 밝고 역동적이며 활기 넘치는 것이 대전사무소의 특징이다.





2020년도 하반기 계도 부문 최우수 기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부문 우수 기관, 국적수여 업무 실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방면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적도,

민원인 공감 능력도 우수

대전사무소는 지난 4월 당진 현대제철 부두에 정박 중인 외항선에서 외국인 선원 2명이 무단이탈했다는 제보에 광역 단속팀을 급파, CCTV 검색 및 이동경로 탐문으로 신속하게 선원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2020년도 하반기 계도 부문 최우수 기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부문 우수 기관, 국적수여 업무 실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방면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할 내 공단이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사무소는 한 건 한 건 성실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영장집행, 계

도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또한 국적 허가 후 수여하는 국적증서 관련해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전사무소의 수여 인원은 2019년 770명에서 2020년 1,152명으로 49.6% 증가했다. 이에 2020년 상위 5개 국적증서 수여 관서 중 비수도권 관서는 대전사무소가 유일하다. 관리과 최종원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라 비대면이나 개별 수여 방식을 병행해 위기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결혼이민자 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들이 증가하다 보니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전사무소는 같은 나라 동포들을 멘토-멘티로 이어주는 등 이민자들 간 교

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민자 사랑방’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랑방이라는 정감 어린 이름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이곳에서는 원예교실 등 다양한 모임이 열리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코로나19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이민자와 함께하는 추억의 사진 전시회’가 개최됐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감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대전사무소는 지난 4월 한 외국인 가족에게 기본 좋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찰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있다며 출국 조치를 요청했는데, 신병을 인수한 조사과의 한재윤 반장은 치료가 우선이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출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즉시 가족을 찾기 위해 대사관에 협조를 구하고 지자체에 병원비 지원을 요청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중국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었다며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Interview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업무 수행”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재완 소장

51명이 근무하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체류관리, 국적업무, 위반조사 등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출입국 행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자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말이나 문화, 제도 등 이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도 이민자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방역전담팀을 구성해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 간 수평적 의사소통 추구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부드러운 근무 분위기를 조성 등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대전사무소

향후 대전사무소는 사범팀과 보호팀을 총괄하는 사범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광역단속팀 등 매년 단속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 관련 사범 처리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데 현재 5명의 위반조사팀 인력으로는 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과 이원호 과장은 “조사과의 직제 개편 및 업무를 조정해 대민원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ی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1년에 지어진 대전사무소의 현 청사는 노후화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일평균 200~300여 명에 이르는 민원인을 수용하기에 대기공간이나 주차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2025년 이전을 목표로 대전서구 정부대전청사 내 신축 예정인 대전지방합동청사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사무소는 새로운 공간에서 더욱 진화된 서비스로 민원인을 맞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사랑방이라는 정감 어린 이름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이곳에서는 원예교실 등 다양한 모임이 열리고 있다.



해외출장이 잡힌 그대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술술 잘 풀리는 해외출장 업무의 시작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1



약속시간 정하기

중동이나 남미처럼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성격이 다소 느긋하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비즈니스 약속에서도 늦는 경우가 많아 만나기 전에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일정을 확인하고, 이메일로도 미리 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약속시간에 늦는다고 나까지 늦을 필요는 없다.

3

인사하기

동남아 국가에서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나눈다. 합장을 한 손을 높이 들어 올릴수록 존경의 의미가 전달되므로 뒷사람을 만났을 때는 손을 입술에서 눈썹까지 들어 올려 인사한다. 유럽이나 페루, 멕시코 등에서는 상대방과 양쪽 볼을 번갈아 맞대는 비주 인사법을 사용하지만, 처음 보는 사이나 남자끼리는 잘 하지 않는다.

2

피해야 할 행동

브라질에서는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만드는 'OK'표시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의미이므로, 아무리 편한 미팅이라도 주의한다. 체코에서는 상대방 앞에서 코를 훌쩍이는 행동이 불쾌감을 준다. 미국은 다문화 사회라 종교나 인종 등에 대한 차별적인 농담은 큰 실례다. 인도에서도 카스트제도나 파키스탄 분쟁 같은 예민한 주제를 삼가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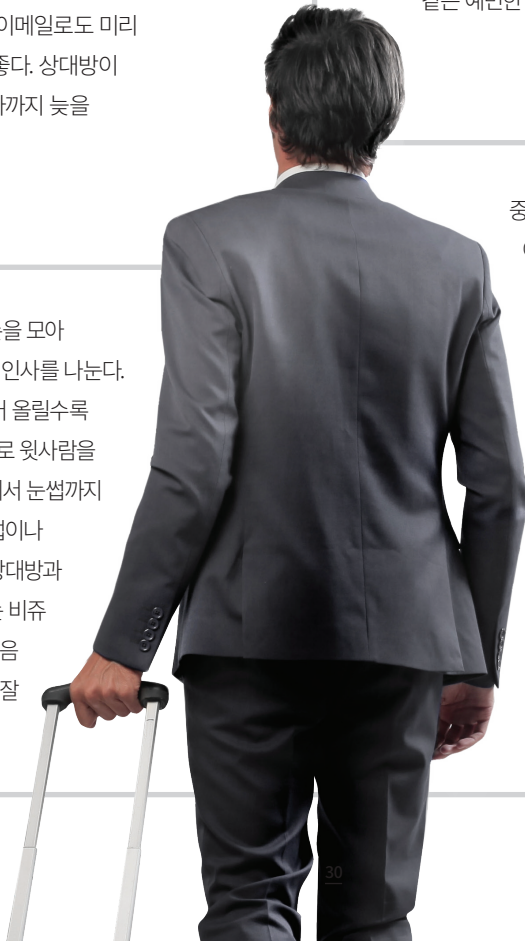


선물 준비하기

중국에서 고가의 선물은 뇌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피하고 선물할 때는 포장 색상도 신경쓰는 것이 좋다. 중국인은 붉은색은 선호하는 반면 흰색과 녹색은 꺼린다. 반면 인도에서는 선물할 때는 녹색, 빨간색, 노란색 포장을 하는 것이 좋다. 체코나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는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아니므로 정 선물을 하고 싶다면 부담 없는 회사 홍보용 기념품이 적당하다.



4



칭찬합시다

“백재욱 담당자님께
질문을 드릴 때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하나 하나 친절히
설명해주시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 주인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백재욱 출입국관리서기

담당 업무는 무엇인가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민원 접수 및
심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대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관공서나 은행 등에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으러 갔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지
항상 되새겨보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제가 심사하여 사증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국내에서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목표는 무엇인가요?

난민과와 조사과 업무를 거쳐 지금은 관리과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데, 앞으로는 역량을 키워
출입국관리 업무 전반의 전문가로 거듭나겠습니다.

“폭력 피해 다문화가정의 자녀
문제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친절함은 물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응대해주셔서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칭찬 주인공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오세용 출입국관리주사보

담당 업무는 무엇인가요?

체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대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보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줘야 할 만큼 도움이 절실한 민원인지 아닌지를
파악한 후 도움이 절실한 민원인에게 조금 더 신경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고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목표는 무엇인가요?

출입국에 여러 업무가 있는데 아직 많은 업무를 접해보지
못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1 vol. 56

외국인 휴대폰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했다. 그동안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해왔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 제공 주기로 인해 범죄의 위험이 있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은 출국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KAIT와 시스템 개선 및 정보연계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KAIT에 제공하기로 했다. 선불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제공해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21일 법무부 대강당에서 우수인재 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금년이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200번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으로서 새 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수여식 전에 박범계 장관은 우수인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인재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포부 및 계획, 한국의 국적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하는 제도로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신축 청사 개청**



법무부가 지난 4월 2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이하 군산출장소) 이전 개청식을 개최했다.

1995년 군산출장소 옛 청사 개청 당시 118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이 작년 말 기준 60배 가까이 증가한 6,926명으로 늘어나면서 공간 협소 문제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청사로 이전하고 지난 3월 29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군산출장소는 체류외국인, 군산항 장항항 입출항 선박 및 선원, 군산 미군공군기지를 통한 항공편 출입국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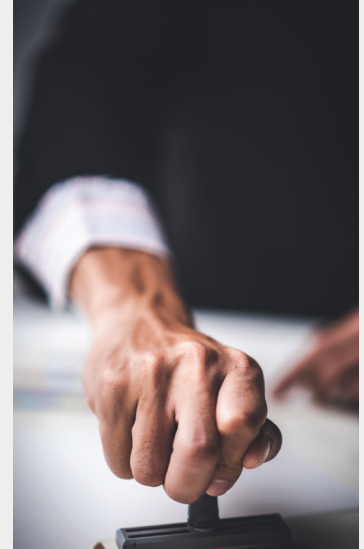
- 군산출장소 주소 : 군산시 대학로 151-1
- 전화번호 : 063-440-8400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추진**



법무부는 오랜 숙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그동안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입국불허 외국인 송환업무는 민간이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고, 국가가 운영할 경우 그간 지적되었던 식사 제공과 질병치료 문제 등을 해소하여 입실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인사청문회 당시 출국대기실 업무를 법무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은 박범계 장관이 취임 10일 만에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방문해 이뤄졌다. 법이 개정될 경우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 운영이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된다.

**법무부-시흥시,
귀화자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 개최**



법무부는 지난 5월 12일 시흥시 늬내홀에서 시흥시와 공동으로 “할반니(캄보디아인)” 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수여식을 기념하고, 2021년 5월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최초로 개최됐다. 이날 법무부장관과 시흥시장으로부터 공동으로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총 31명이며, 일반귀화자 6명(수반취득 1명), 혼인귀화자 16명, 특별귀화자 9명이다. 귀화자의 자녀로 수반취득을 한 허소정(중국인)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입니다. 오늘 드디어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행복을 전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EVENT

공존

함께한다는 뜻이기에,
함께하겠습니다

2021년 <공존> 여름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소중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1. 7. 19. ~ 8. 9.

참여 방법

-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물 or 유튜브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경품

의견을 주신 분 중
10분을 선정해
파리바게뜨 교환권
(2만 원)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1년 8월 16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1년
7월 1일
부터
From July 1, 2021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The period of stay for foreigners will be granted only within the validity of the passport.



예외 체류자격
Exceptions

- 영주자격(F-5)
Permanent Resident (F-5)
- 난민인정자(F-2-4)
Recognized Refugee (F-2-4)
- 인도적체류허가자(G-1-6)
Humanitarian Status (G-1-6)



※ 본인의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필요

In case of passport renewal, you are required to report to the immigration office of jurisdiction within 15 days,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